

연중 제22주일

기도서 P. 427 C해

제1독서(집 회 3, 17-19, 28-29)
제2독서(히브 12, 18-19, 22-24)
복 음(루 가 14, 1.7-14)

숲 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불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감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강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김 병 환 신부

요즈음 신문을 보고 있노라면 활자들이 춤을 추면서 마치 미친사람이 미친 짓을 하는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 기후에 탕이 있는지, 보는 사람에게 탕이 있는지, 아니면 세월이 탕이 있는지, 누가 미쳤든 미친것 만은 확실한가 보다. 요사이의 우리 주변에 어쩌나 옳은 일들이 많은지 무엇이 옳은 일이며,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분간하기조차 어려운채 하루 하루를 보내는 것 같다.

옛그제 일인데 그날 따라 유별나게 더운데니만 또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다. 오후 늦게 사제관에 있었는데 남루한 차림을 한 중년이 찾아와서 신부님을 뵈자는 것이다. 자기는 신자인데 모처럼 전주에 와서 차비가 떨어졌으니 서울에 갈 차비를 달라는 것이다. 가끔 있는 일이라니 했는데, 그와는 달리 당당하게 금액까지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호주머니에는 돈이 없어도 재산(부동산)은 수억이 된다는 것이다. 뻔뻔스러운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뜸 한다는 이야기가 한가지 물어볼게 있다는 것이다. “신부님, 나는 성서에 나오는 부자에 속합니까, 가난한 사람에 속합니까?” 하는 질문이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틀리는 수법이 꼭 누구를 닮은 것 같아 패설하고 미운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부자일까? 가난한 사람일까? 하는 의아심을 가져본 적이 있었다. 저 꼬락서니를 보면 평생 저렇게 살터인데, 저지중의 저지이지 부자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자기 말대로 재산은 있으니, 저지라고는 할 수 없지 않은가?

왜 인생을 저처럼 답답하고 구차하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 자신이 하루 종일 인짬은 기본으로 하루를 보낸적이 있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生)은 참으로 귀한 것인데...

태초에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 모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시지 않으셨는가. 이처럼 우리의 생(生)이 귀하다면 우리의 삶 역시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니겠는가.

바오로 사도는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뽑아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참으로 하느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야 하겠다. 여유를 가지고 겸손과 사랑 안에서 풍부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보잘것 없는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웃에게 기꺼이 나누어 줄 줄 아는 여유와 양보하기 어려운 전력이나 명예, 자기과시 등을 기꺼이 버릴 줄 아는 풍부한 마음을 간직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결코 높은 자리를 찾은 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 복음을 읽어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모두 겸손과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어 살아야 하겠다. <서학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모스크바 올림픽

—비겁하고 잔인한 미사

경기라 함은 “서로 어떤 기술이나 재간을 겨루어 그 낫고 못함을 경쟁함”을 말한다. 또한 “체력·정신력을 다투는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경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 국제 올림픽 경기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나 성격으로 보아서, 크게는 「선거」까지도 일종의 경기라고 볼 수 있겠다.

국제적인 대제전인 올림픽 경기가 금년에는 지난 7월에 공산국가인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그러나 미국 등 자유 우방국가 60개국이 참가를 거부하여, 주로 공산권 국가들인 78개국이 모여 자기들끼리 집안잔치를 벌이고 말았다. 왜, 우리나라도 어떤 종목은 지역 예선이라는 어려운 난관을 통과해 놓고도 우리의 실력을 겨루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말았는가?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미그기와 탱크를 앞세워 아프카니스탄을 비겁하고 야비하게 무력 침공하여 선량한 양민을 학살한 소련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서였다.

공산국가의 선거라는 것도 [우습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북한의 신문인 민주조선을 보면 이러한 제목의 기사가 소개되고 있다. —“위대한 승리 만세! 전체 선거자의 100%가 선거에 참가, 전체 선거자의 100%가 찬성 투표.” 공산국가는 한 사람의 입후보자를 내세워 선거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항상 99% 이상의 투표와 99% 이상의 찬성으로 나타난다. (중학교 도덕 2<학>p.108 참조)

무릇 경기라함은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똑같은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법적인 조건을 구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뜻에 의해서 입후보하고, 공평한 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모스크바 올림픽의 상징인 북극곰 미사, 역시 적을 뒤에서 공격하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갈기갈기 찢어 놓는 잔인한 모습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말았다.

숲 정이 산책



「트
디
어」



교구를 달리 하면서

이 금 수

금산 본당은 1929년 금산군 진산면 지방리에서부터 전 교가 시작된 이래 1946년에 본당으로 승격, 반세기동안 전주교구의 역사안에서 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 왔습니다. 따뜻하신 교구 목자님들 덕에 우리는 이제 자립 본당으로 면모도 갖추게 됐고 현재 신자 1천 5백명에 공소 2개, 신심단체 22개가 힘을 기울여 조금씩 조금씩 더욱 자라나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할 뿐입니다.

국경이 있을 수 없듯 오직 자신의 믿음안에서 멀고 가까운 것 없이 신앙생활도 해야 할 것 입니다만 인간생활을 떠나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교구 김재덕 주교님께서 금산 신자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금번 가까운 이웃 대진 교구에 소속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진한 역사의 인연속에서 전주 교구와는 끊을 수 없는 정과 사랑을 맺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신자들의 조상 제례에 대한 문제로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신 전상현, 윤지충 등 교구의 첫 순교자들을 낸 곳도 바로 우리 금산 본당입니다.

금산 본당은 지금 자신의 신앙 재교육 실시와 가족끼리 공동기도 바치기, 신심단체 육성등으로 레지오 마리에 단독 꾸리아가 조직됐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백암리 공소에 성당을 건립,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 배가운동에 수반하여 신용 조합을 창설, 임직원 신자화 운동에 99%의 목표를 달성하고 신용조합 단독 임직원 레지오 마리에(바다의 별)까지 조직도 하였습니다. 또 본당 자립 운영에 지표가 되는 봉헌정신 함양을 기반으로 봉헌실적도 겹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본당을 거쳐가신 역대 주임 신부님들과 김재덕 주교님의 사랑과 열사 봉공하신 노고의 댓가라 우리는 지금 굳게 믿고 있습니다. 두루 두루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금산 본당 신자들은 김재덕 주교님과 우리 본당을 위해 맘 홀리신 여러 신부님들의 뜻에 보답하고자 전보다도 더 열심히 하느님 사업에 열심하여 본당 발전에 더욱 이바지 할 것을 다시 굳게 다짐해 봅니다.

교구 이관이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가까운 대진 교구에서 행하는 신심교육 등 모든 행사에 자주 왕래하므로써 신자 재교육은 물론 신심을 돈독히 하여 교회 발전에 어느 본당 못지 않게 열심할 것을 하느님 앞에 엄히 맹세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로지 주교님 사랑과 교구민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며 하느님의 뜻이라 깊이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정든 본당을 떠나면서…」

오 현 택(가시미로)신부

친애하는 금산본당 신자 여러분, 전주 교구의 마지막 본당 신부로서 이렇게 떠나게 되어 섭섭하기 그지 없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까지 전주교구 소속 본당으로써의 우리 금산본당이 이제 대진교구 소속아래 주님의 구원사업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금산본당은 1929년에 진산 지방리에서 본당으로 창설되었으나, 대망의 뜻을 품고,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이곳 금산 중도리에 현 성당을 마련하여 그동안 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의 역사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여 자립본당으로써 오늘에 이르렀읍니다.

이제 성장의 결실을 거두어야 할 단계에 전주 교구로부터 떠나 대진교구의 역사속에서 또 다른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50년동안 전주교구 역사의 인연속에서 성장해 왔던 과거를 잊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껏 전주 교구에서 갈고 닦은 신앙의 횃불을 거울 삼아 새로운 각오와 힘으로 더욱 발전하여 이 지역을 비추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 본당을 거쳐 왔지만, 제 사목생활에 금산본당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충남이라는 도 행정구역이 다른 본당에서의 사목생활이었을 뿐 아니라, 이곳에서 전국에서도 유명한 인삼고장이었고, 부임이후 놀랬다는 3대 조건들, 더구나 전주 교구로서는 제가 마지막 본당 신부였다는 점, 이런 것들이 오래도록 제 기억에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이제 서로가 몸은 떠나더라도 신앙안에서 항상 일치하고 매 미사때마다 만나리라 믿읍니다.

늘 건강들 하시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주님 강복을 빌면서 이렇게 지면을 통해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80. 8. 31

(금산 주임신부)

모쪼록 금산 본당이 대진 교구에 이전해 적은 달리하게 되더라도 시집가는 딸 마냥 더욱 고인 정 담아 어루며 인도하여 주시고 신자생활을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큰 축복과 사랑의 성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전 신자를 대표하여 빌며 인사드립니다.

전주 교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감사합니다.

1980. 8. 28

(금산 천주교회 사도회장)

□ 교우여러분의 가정에 소량도 신속 배달하겠습니다

한 미 주 유 소

전화 ⑤ 5669 번

주 최 남 수(아쁠로니오)

(가톨릭 센타 사무장)

전주시 효자동 1가 283번지

□ 각종 케면·카페트·웅점셋트·실내장식 일괄

삼 성 인 테 리 어

주 이 증 확(바오로)

전화 ⑤ 1330

(팔달로변 전화국 북편 송의과 옆)

□교구소식□



교구장님 영명 축하

—사제들의 온정 속에 조출히 맞어—

지난 28일 교구청에서는 교구내 전 사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간소하나마 오붓하게 교구장님의 영명축일을 경하했다.

60명생의 감회 깊은 회갑을 맞으셨던 지난 5월 28일에도 그 술한 노고에 감사드리려는 자녀들의 조그만 수연조차 거절하시던 주교님. 하마터라면 「아우구스티노」 축일마저도 조용히 자리를 감춰 제대로 모시지 못할 뻔 했다.

어지러운 세상 탓일까? 부덕한 소생들의 탓일까? 좀더 확안히, 기쁘고 성대하게 단 한편의 영신 탄일을 경축하지 못하는 우리네가 마냥 민망스럽다.

부디, 전승하시고 주 안에 만안(萬安) 이루시옵소서! 님의 축복 있으시옵기 만을 빌 따름입니다.

「레지오 마리에 간부피정

3.4차 성황리에 마쳐…」

본 교구에서는 신앙쇄신을 위한 신자 재교육 일환으로 사목국에서 주최, 교구단위 피정을 실시해 왔었다.

그동안 16차 실시에 약 1,000여명 이상의 각 본당 지도급 신자 재교육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난 22~23일과 25~26일에 실시된 3,4차 피정에 130여명의 각 본당 레지오 마리에 간부급 단원이 참여해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레지오 간부급 단원을 대상으로한 4차에 걸친 피정에는 250여명의 레지오 단원이 참석하여 신심생활에 커다란 보탬이 되었다.

그동안 수고해 주셨던 교구 교육위원 신부님들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교구 교리 경시 대회 실시

(오늘 미사후 각 본당에서 일제히)

선교 200주년을 앞두고 진정한 내적쇄신을 통한 일치와 활성화를 위해, 금번 교구에서는 지역적으로 혹은 단위적으로 실시되던 교리 경시대회를 교구단위로 일원화하여 국민학교로부터 일반부까지 성서를 중심으로 일제히 실시합니다.

본당 신부님을 비롯해서 사도임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무려 7,000여명이 시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성서적 인간은 곧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오늘의 시대와 상황을 외면할 수 없는 필연 앞에서 하느님의 성의(聖意)에 어울리는 신앙생활을 모색한다는게 이번 시험의 출제 방향입니다.

“신앙을 말씀을 깨우치는 것으로 시작된다”던 바오로의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요심이 (369) 김병오



사진자료 및 기계 칼라필름 도산매

유 광 사

주 유 가에따노(영문)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후문 앞)
전화 ㉠ 4448 · ㉡ 2176

茶房 門을

열었습니다.

전주 전신전화국 앞 옛자리 지하

☎ ㉠ 5013 · 5011

임 금 님

◎담고약L · 우진파스

주효능 · 신경통 · 근육통
진통 · 운동전후

◎부이리진

주효능 · 식욕촉진 · 발육촉진
영양장애

우진제약(주) 전북사무소

소장 이 용 우(비오)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칠,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안료, 왁스, 글분, 은분, 가구재료 도장공사 청부(상담)

현대 페인트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주 직매점

주 오영원(바오로) · 김영환(아오스딩)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2377번

◎ 건강 관리 센터 ◎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시내버스 승차장)

전주 육교옆 중앙시장동

(전화 ㉠ 4577, 5789)

제2차 마인드 콘트럴

강좌 안내

일 시 : 80. 9. 11<목>부터

오전반 : 9시 30분

오후반 : 6시 30분

장 소 : 전주 가톨릭센터

강 사 : 김중배(말시아노)선생

무료 공개 강의 : 9. 11~12

(2일간)

연락처 : 가톨릭센터

전화 ㉠ 3498 · 7127번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순교자 현양대회 기념 교리경시대회...8월 31일 <일>, 공식미사 후
 2. 대학생 연합미사 장소 및 시간변경 안내...매주 화요일 6시
장소: 가톨릭 학생회관(덕진), 지향-대통령 등극축하 및 호국을 위한 미사, 전원 참석 바랍니다
 3. 제 2 지구 교리교사 연합회 모임...9월 6일 <토> 오후 5시
장소-오룡동 천주교회, 주제-2학기 교육방안 모색 및 보고
 4. 레지오 마리에 교미시움 심입원 개편...단장-이현재(요셉), 부단장-한형수(베드로)
서기-박중주(바드리스요), 양순혜(세시리아), 회계-이길용(엘리사벳)
- 정의평화를 위한 성금...분울동 서켈뚜르다(2천원), 김계 여성꾸르실로(1만원), 나중윤(5천원), 이근선(2천원), 이상우(3천원)
- 이상섭(모이세) 9월 4일(영명축일) 축하연 없습니다.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문정현	협필구
보좌	신부	박성필	
사도	회장	김병	

1. 순교자 현양대회 교리경시대회: 공식미사 후
 2. 어머니 성가대 월례회: 9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
 3. 성심부녀회 월례회: 9월 5일(금) 어머니미사 후
 4. 여성 율레아: 6일(토) 오전 10시, 강당
여성 꾸르실리스타 14분 꼭 참석하세요
 5. J, O, C 일반회: 하느님, 나, 만남
강사-문정현 신부, 9월 7일 오후 2시, 강당
 6. 중학생 교리안대: 9월 7일부터 매주 일요일
제 미사후(성경, 성가집, 노트 지참)
 7. 쉼 지도자 임시총회: 8월 31일 <일> 오후 3시
 8. 순정이 신축기금 신입금: 8월말로 마칩니다
9월부터는 순정이 성당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불현금: 375,501원

(노충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김정원	원근
보좌	신부	나준	
사도	회장	박준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서강의: 매주(월·화) 저녁 8시,
우리는 보다 많은 성서에 대한 지식을 지켜야겠읍니다.
성서를 알지 못하므로 어떻게 남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3.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지난번 제8차 성령세미나를 수료하신 분(123명)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청장년 재속 형제회: 매주 공식미사 후
 5. 금주의 성경읽기: 신약의 마르코복음 전체
 6.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7. 주일 출석카드: 주일 출석카드는 사무정리상 당분간 보유합니다
- 지난주 불현금: 247,980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기오	기오열
보좌	신부	조정상	
사도	회장	양	

1. 사도회 월례회의: 9월 6일 저녁미사 후
 2. 예비자 교리: 9월 7일부터 시작
 3. 유아세례: 9월 5일 10시미사 후
 4. 주일학교 개학: 9월 6일 오후 3시
 5. 주일 첫미사 변경: 5시30분에서 6시로
저녁 8시에서 7시30분으로 변경
 6. 미사시간에 늦지 맙시다
성서·성가집은 가져오셨는지요?
- 지난주 불현금: 298,25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배우
보좌	신부	범영	
사도	회장	조성호	

1. 9월은 복자 성월: 매일 미사후 공동 성월 바침
2. 사도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첫 철례 7: 9월 6일(저녁미사)
4. 복자부녀회 월례회: 9월 3일(수) 오전 10시
5. 성가연습(어머니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김동준 신부님 지도)
6. 분당내 젊은이 단합 체육대회: 9월 6일 오후 3시
장소-해성학교, 참가비-500원
7. 전모임 안내: 2제 남자-토요일 오후 5시
2제 여자-토요일 오후 6시
3제 남녀-토요일 오후 4시
제미사: 금요일 저녁미사, 주일 학생미사-9시

8. 전화있는 교우 가정은 전화번호를 불현금 봉투에 적어 주세요
- 지난주 불현금: 289,765원

(서화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병환	한수
사도	회장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미사시간 변경: 새벽미사-6시, 저녁미사-7시 30분
 3. 초·중·고생 교리경시대회 시험: 31일 11시
 4. 유아세례: 다음주 공식미사 전(9시 30분)
미리 사무실에 신청 바람
 5.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이정민·김광수
신자들의 기도-윤성순
- 지난주 불현금: 153,815원 교무금: 45,000원

(순정이)

전화 ⑦7366

주임	신부	이대권	권노
사도	회장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누갈다 부녀회 월례회: 9월 6일
 3. 요안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박병열씨 때)
 4. 유치원 개원식: 9월 3일
 5. 성가연습: 매주 공식미사 후·매주(화) 오후 2시
 6. 신축기금 내주신 분: 송사차(3만원), 오창식·조세리아(각 5천원), 이숙자·중앙성당 김남순(각 5만원), 김양순·전동성당 정심환(각 1만원), 복자성당 신일애숙(16만7천원), 부산성가병원장김진기(5만원)
 7. 미사시간 변경안내: 주일-오전 6시
공식미사-10시, 오후 7시 30분
평일-아침 6시·오후 7시 30분
※ 아동미사·학생미사는 중점과 같음
 8. 애령회 소식: 진북동 차양수(3만원), 부산 성가병원장(3만원) 회사
- 지난주 불현금: 185,92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	염수
보좌	신부	김기	유석
사도	회장		

1. 글라리 형제회: 오후 1시 30분
 2. 성가정회: 9월 1일 12시
 3. 젊은이 예비자 교리: 매주 수·목요일 저녁미사 후
 4. 미사시간 안내: 아침미사: 평일-5시30분, 주일-6시
저녁미사-7시 30분
 5. 교리교사 단합대회 잘 다녀왔습니다(8월 18~20일)
 6. 현양대회 성가연습: 매일 저녁미사후, 사제관 2층
젊은이를 많은 참석 바랍니다
 7. 교리경시대회: 오늘 11시 30~12시 30분
 8. 다음주 전례담당(9월 7일)
아침미사: 사회자-박중주, 독서-①최병태 ②이진홍
공식미사: 사회자-서성우, 독서-①이준영 ②박도식
저녁미사: 사회자-경양수, 독서-①이진홍 ②이승호
- 지난주 불현금: 388,365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	일
사도	회장	채수	현

1.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2. 성모기사 월례회: 9월 6일 오후 2시
 3. 교리경시대회: 오늘 오전 11시-중·고등학교생
 4. 지난 분당신부님 영명축일에 영적·예물 감사합니다
물적예물은 수년전 신축기금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5. 부녀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6. 바오로회 월례회: 오늘로 변경
- 지난주 불현금: 109,200원 어린이현금: 3,800원
교무금: 153,500원